



밀레 "씨뿌리는 사람" 1865년경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co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특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 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이사야 55,10-11

(후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회답송 ○ 하느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하느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영글게 하시나이다. ◎ ○ 정녕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고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흡수를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로마 8,18-2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복음 | 마태오 13,1-23

- 성가 | 입당성가 [329]
- 예물준비 [54]
- 영성체 [188]
- 파견성가 [63]

미사 봉헌

연미사

김영 보나벤투라
김세영 야고보, 남정희 아네스
서병철 니콜라우
이상미 카타리나
송준철 루카

봉헌

김승애 클라라
이은경 헬렌
서경자
이사라
송명근 안드레아

생미사

김은성 피터
성령대회에 함께한 모든 분들
박기목 알버트, 박민재 아그네스
강호영 안드레아, 김순자 엘리사벳
윤루시아
김명숙 건강
박난성 요셉프란치스코

봉헌

가족
성령기도회
이미숙 안나
민완준 필립보
김영희 클라라
강혜숙 바울라
이미숙 안나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신청:사무실

▶주일 미사 직후 친교실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
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김가롤로 신부님 특강

7/16(오늘) 11시~12시, 다미안홀

▶제27차 2023 미동북부 성령대회

주제: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일시: 7/22(토) 9am-7pm, 7/23(주일) 9pm-5pm
장소: 포트리 하이스쿨 오디토리움4 참가비: \$35(양일간
점심과 간식제공) 문의: 성령기도회장 이안나 917-579-5072

▶박 효철 베네딕도 신부님 특강

7/23(다음 주일) 11시 다미안홀

▶요셉회, 성모회 야외행사

7/30(주일) NJ/Tallman Mountain State Park
신청: 김테클라 646-789-1433

▶맨하탄 성당 청년 여름캠프에 초대합니다.

날짜: 8/25-27(2박3일) 참가비: 7/30까지: \$200,
8월은 인원마감되면 신청불가, 인원마감 전이면 \$220
문의: 청년회장 양젼마 kakao ID: Jcy258

▶2024년 부활절 세례,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교리 첫만남: 2023년 10/1(주일), 교육관 3A
세례일: 2024년 3/30(토) 부활성야
교리시간: 매주일 오전 11시, 문의: 김효주 수녀 347.834.5784

▶성경공부(BIBLE Academy) 1학기

목요일 수업, 7/20(목) 10am	김효주 수녀
----------------------	--------

▶포담대학교 ELS 프로그램(영어, 컴퓨터 수업)

성프란치스코 성당과 협력하여 영어 및 컴퓨터 수업 무료 제공함.
영어수업: 매주 월, 목 9:30am-12:30pm. 개강: 9/11
컴퓨터: 9:30am-11am(기초)11:30am-1pm(중급) 개강:9/27
장소: 교육관1B 문의: 클라리사 631-568-9558

▶주일학교 교사모집 신청: 신부님

▶전례봉사자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 지향	성찬 봉사	복사
7/16	김유화 테레사	강호영 대잔안드레아	김미혜 이레나	김미혜 이레나	유정옥 유스티나	이유채아멜리아 최예준사도요한
7/23	김진섭 야고보	백승민 안드레아	민덕미 안젤라	민덕미 안젤라	이지훈 아네스	한서희테레사 양지수글라라

▶교우분들은 미사전 독서와 복음 읽기에 참여합시다

"교회 앞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미사경본 총지침)

미사전 독서와 복음을 미리 읽고 미사에 참여하면 말씀의 식탁에
풍성하게 차려진 말씀의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삶과 피가 됩니다.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더큰집
TEL. 212-564-8238

HB HANBIT TOUR, INC.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32 St.- 33 St.) New York, NY 10001
Tel : 347-840-2112 Fax : 212-631-8070
hanbittour@gmail.com

백승민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1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

CHA PHYSICAL THERAPY
차 물리치료 |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Hair City Elegance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WONJO
New Wonjo
212-695-5815



생명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

이승현 베드로 신부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본부장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뿌려진 씨는 길에도, 돌밭에도, 가시덤불에도,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씨는 뿌려진 상황에서 각자 노력하다가 서로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며 씨가 뿌려진 곳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하느님의 말씀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비유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 말씀 선포자의 열정도 배워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인 씨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질 수 있는 것은 씨 뿌리는 사람이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런 모습을 무모하다고, 또는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모든 이의 마음에 하느님의 말씀이 자라기를 바라는 말씀 선포자의 열정 때문이며,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가 정한 '농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농업·농촌·농민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우려하여 1994년에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을 시작하였으며,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1996년부터 7월의 세 번째 주일을 '농민 주일'로 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농민 주일은 농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식탁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탁과 마주해야 합니다. 매일의 식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이

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 첫 자리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노력하는 농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상황에서도 농민들은 생명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 농업의 영세함이나 허약함을 이유로 농업을 포기하고 무역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식탁을 차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식탁은 경제적인 문제로만, 효율의 문제로만 따질 수 없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는 생명의 논리로 접근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이 결과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하느님 말씀의 선포에 충실하였듯이, 농민들도 씨를 뿌리고 가꾸고 수확하는 농사일에만 충실합니다. 그 충실함의 바탕에는 생명에 대한 희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에 대한 사명을 자신의 자리에서 충실히 하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농민들의 생명을 향한 열정이 우리의 식탁을 지키고 있습니다. 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처럼 포기하지 않는 이 땅의 농민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 도시민과 농민은 서로에게 생명을 내어주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비유에서 포기하지 않는 씨 뿌리는 사람과 좋은 땅이 만나서 백 배, 예순 배, 서른 배의 결실을 맺었듯이, 도시와 농촌이 생명을 위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농민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한 활동인 것입니다.